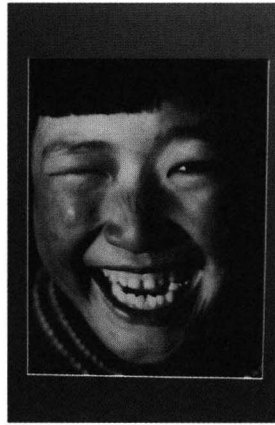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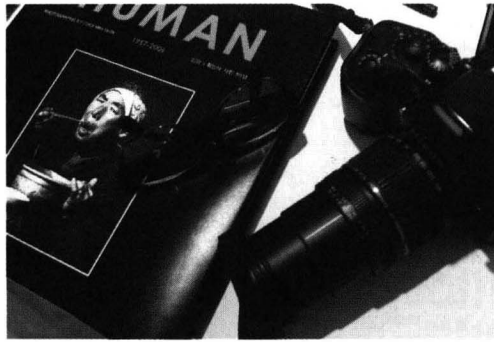


사진작가 최민식

“인간이 거기 있기에 나는 셔터를 눌렀다”



50년 동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진에 담은 작가는 그 동안 <HUMAN>이라는 제목으로 13권의 사진집을 출간했다.



한국 사진작가 1세대 거장. 최민식 씨를 일컫는 수식어다. 최근 작

품 활동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 <HUMAN>을 열고 부산에서 상경한 작가를 만났다. 올해 나이 여든. 하지만 그의 얼굴에선 팔십 해 세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글씨 쓸 때를 제외하고는 안경이 필요 없는 밝은 눈 하며, 홍조를 띤 맑은 얼굴, 그리고 5kg이 넘는 카메라 가방을 메고 하루 30km를 걸어 내는 체력까지. 여든 해 절반을 살아온 사람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일상을 그는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다.

50주년에 대한 감회를 묻자 작가는 “50년이라는 표현보다 반백년이라는 표현이 좋다. 더 길어 보인다”라며 농을 건넨다. 그가 지내온 세월의 값은 타인이 가늠할 수 있는 깊이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그의 앵글에 잡히는 피사체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슬픈 시선, 그러나 탐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순수한 눈빛과 주름진 얼굴을 그는 사랑했다.

그림을 배우러 건너간 일본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꾼 한 권의 사진집을 만난다. 밤에는 동경 중앙미술학원에서 그림을 배우며 낮에는 철물을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고단한 생활. 유일한 취미생활인 헌책방을 찾던 날, 우연히 손에 잡은 에드워드 스타이켄의 사진집 <인간 가족>에 담긴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과 헐벗은 동포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술의 길을 발견했다.

“내가 사진 찍는 목적은 인류의 평화를 위함입니다. 외도하지 않고 평생 일관된 주제로 사진을 찍은 이유도 그 때문이지요.”

일본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그는 부산 한국자선회의 사진가로 활동한다. 그의 임무는 외국 후원을 유치하기 위해 전쟁고아들의 실상을 사진에 담는 것이었다. 일부에서는 국민들을 국제 거지로 만든다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지만 그에게 있어 가난한 이웃의 모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다. 또 가난과 맞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담는 것이 그의 사진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술적 가치라 여겼다.

“인류의 평화 행복, 인간의 존엄성, 나눔, 봉사의 정신을 사진을 통해 전하고 싶었어요. 내 사진을 보고 누구나 쉽게 찍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찍어보면 압니다. 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곧 사진을 찍게 한 원동력이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이 길로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백이 뼈아프게 들린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사진전과 국제무대에서 찬사도 받았다. 그러나 정작 그가 얻은 것은 치열한 예술의 길과 그만큼의 생활고였다. 그럼에도 신께 감사하며 묵묵히 오랜 세월 한 길로 정진했던 그의 믿음과 신념, 그리고 사진에 대한 열정이 승고해 보인다. 정신을 담은 사진.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진정한 예술의 길이다. 끊임없는 독서와 사색, 그리고 나눔의 길을 모색하는 노력은 그의 작품이 빛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요즘도 작가는 사진 여행을 멈추지 않는다. 힘들고 지칠 법 한데 새해 계획만 해도 열거하기 벅차다.

“시간이 아까워서 다른 일 할 시간이 없어요. 70세 넘어가니까 더 그렇네요.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하려고 하죠. 아프리카 난민들 모습도 찍고 싶고, 외국의 시골풍경도 찍고 싶어요. 그 사진들로 전시도 하고 책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는 사진하는 사람에게 체험만큼 중요한 양분은 없다고 말한다. 생을 다하는 날까지 ‘인간’을 테마로 한 작품 활동을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의심치 않는다는 작가의 태도 앞에 숙연해졌다.

“사진은 진실을 담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찍던지 자기가 추구하려는 작품세계에 대한 테마를 정해서 정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수 사진집 첫 장을 열어 한 줄 인사말을 적어 기자에게 건넨다.

“사진은 思想이다”

모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아쉬움 없는 작품 활동을 펼칠길 또한 그의 사진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와 ‘인류애’를 새길 길 마음으로 성원해 본다. **주필**